

보도자료

2011년 4월 26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전파정책기획과 박노익 과장(☎750-2210)
전파정책기획과 조관복 사무관(☎750-2214) kbjo@kcc.go.kr

중소업체 “정부의 전파산업 육성의지 평가 및 지원확대 필요”

- 방통위, 전파방송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월 26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남석 전파기획관과 전파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중소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의 우수업체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전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 패러다임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전파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전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중소업체 위주의 국내 무선통신장비 업계는 기술경쟁력이 낮고, 개발 인프라가 열악하여 국내외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전파연구소에서 2,331개 업체 14,043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5,442개 통신장비가 외국제품이고,

특히, 저가의 통신장비가 3,648개를 차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파산업 육성을 위해 유휴계측기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내외 전파방송 산업 통계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측에서는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전파산업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전파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장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붙임 :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중소업체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신기술 개발을 완료한 전파방송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매칭펀드(정부 70%, 업체 30%)로 지원
- 수행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지원예산 : 9,074만원
- 지원기간 : '11. 4월 ~ 11월(총 8개월)

□ 시제품 제작지원 업체

업 체 명	대표	주력분야	'10 매출액	지원액(천원)
알트론(주)	천정봉	이동통신 및 DMB 중계기	145억원	10,000
텔레프론티어	안지호	위성 수신용 평면 안테나	3.2억원	9,940
(주)텔리언	김재근	Wi-Fi AP, VDSL2, GE-PON, G-PON	210억원	10,000
매크로영상기술(주)	박희복	고화질 디스플레이 칩	90억원	9,800
(주)바이오사운드랩	김문수	보청기 등 의료기기 제조	0.8억원	9,000
(주)리버스톤미디어	박득인	방송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1.7억원	9,000
(주)모피언스	정운철	항공용 항행안전무선장비	83억원	9,000
큐브론(주)	채재신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의료용 모니터	12억원	8,000
(주)이피아테크	조중삼	무선통신기기, 원격제어시스템	8억원	8,000
(주)인피니텍	허충구	D-TV, EMC, 통신용 전력증폭기	18억원	8,000